

부부 용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조 영 주[†]

한경국립대학교 / 교수

이 연구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부부 용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부부 용서에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포함하여 각각을 정의하고 문항을 제작하였다.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혼 남녀 588명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 모두 부적 용서, 정적 용서, 용서 구하기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22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내적 일치도와 반분 신뢰도로 살펴본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신뢰도는 우수하였고,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공인 타당도 및 충분 타당도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 용서에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포함했다는 점, 또 거짓 용서와 구분되도록 했다는 점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부부 용서 척도는 부부 상담에서 부부의 상처와 용서를 평가하고 상담 성과를 확인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부부 용서 척도, 배우자 용서, 자기 용서, 용서 구하기, 타당화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8051441).

† 교신저자 : 조영주, 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Tel: 031-670-5414, E-mail: yjcho@hkn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부부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자기 잘못으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때 주고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개인적 수준에서는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부부 관계에서는 갈등이 깊어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 경험은 다른 구성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은 체계의 관점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부부는 가족 체계의 핵심적인 관계로 부부 하위체계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부모 하위체계로도 기능한다(김혜숙, 2008; Minuchin & Nichols, 2013). 이에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의 핵심이 되는 부부 하위체계를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부모 하위체계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자녀를 포함한 전체 가족 체계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들은 부부가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개입 방법의 하나로 용서를 듣다(강주희, 박종효, 2014; Woldarsky Meneses & Greenberg, 2014; Zuccarini et al., 2013). 용서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에서는 용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분노, 불안 및 우울이 감소하고 정신건강이 향상되었으며(강주희, 박종효, 2014; Reed & Enright, 2006), 부부 하위체계의 적응과 만족도를 높이고 부부 갈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곽민하, 전혜성, 2016; 정문경, 2017). 부부 갈등을 호소하는 개인이나 부부를 상담

할 때 상담자는 부부 용서 개입이나 용서 프로그램 참여를 상담 전략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 효과적인 부부 용서 개입과 용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로 부부 용서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부 용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자는 그 이유가 부부 용서를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부부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용서를 측정할 때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용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척도들이 부부용서를 측정하는데도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다. 또한 부부용서에 대한 연구는 잘못을 한 배우자에 대한 용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배우자에게 잘못한 자신에 대한 용서는 간과되었다. 이에 더하여 부부용서를 측정할 때 성급한 용서, 강요된 용서 및 습관적 용서와 구분하는 장치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한점을 보완하여 부부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한 척도를 타당화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용서의 개념과 특징을 토대로 부부 용서를 정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부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척도를 리뷰하고, 타당한 부부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해 고려할 점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할 것이다.

부부 용서의 정의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피해자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부부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상처받

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가해자도 되는 경우가 많다(조영주, 심은정, 2023). 이러한 관점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부부를 하나의 체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부부용서를 개념화하고 측정하기도 하였다. Pollard 등 (1988)은 가족용서 척도 안에 주요 관계 용서 하위 척도를 포함하면서 ‘언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사과한다’와 같이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은 문항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용서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가족 용서를 측정 할 때에도 가족을 체계로 보고 ‘우리 가족들은 상처를 받으면 서로 비난한다’, ‘우리 가족들은 서로 상처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였다(이윤희, 서수근, 2012).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부 체계나 가족 체계의 용서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개별 구성원의 용서 경향성이나 특정 가해자와 특정 피해자 간에 일어나는 용서는 알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부부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서 더 많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체계 안에서 부부의 권력이 평등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지배하거나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김혜숙, 2008). 혹은 특정 사건이나 일련의 상호작용의 특정 시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대표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인 요구-칠회 의사소통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요구-칠회 의사소통은 한 사람의 과도한 요구로 상대방이 관계에서 철회하고, 요구자는 더 과도하게 요구하고 철회자는 관계에서 더 멀어지는 상호작용을 말한다(Johnson, 2004). 이때 요구자가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는 상황에서는 요구자를 가해자로 볼 수 있고, 다음 시점에서 철회자의 냉담한 반응으로 요구자가 상처받는 상황에서는 철회자를 가해자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용서 연구에서는 부부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용서의 대상을 특정하여 살펴보았고, 부부 용서나 친밀한 관계 용서를 측정하면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상처받았을 때와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를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서의 반응을 응답하도록 하였다(서정선, 신희천, 2007; 정성진, 2011; 조영주, 2022; Busby et al., 2019; Braithwaite et al., 2011; Fincham & Beach, 2002; Fincham et al., 2007; Gordon et al., 2009; Kachadourian et al., 2004; Paleari et al., 2009; Pelucchi et al., 2013; Robert et al., 2020). 이에 더하여 위에서 언급한 Pollard 등(1998)도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용서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는다’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는 문항도 포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처받은 피해자로서 배우자를 용서하는 배우자 용서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로서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 용서를 구분하여 부부용서에 포함하고자 한다.

용서는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줄어들고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McCullough et al., 1997; Thompson & Snyder, 2003). 부정적 태도는 대상

을 성가시게 여기는 것부터 분노를 느끼는 것에 이르는 부정적 감정,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악의 화신으로 보는 것에 이르는 부정적 생각, 무시하는 것에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에 이르는 부정적 행동을 포함하며, 긍정적 태도는 상대에게 연민을 가지고 좋아하는 긍정적 감정, 잘 되었으면 하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긍정적 생각, 눈을 맞추는 것에서 그 대상의 안녕을 위한 적극적 도움과 같은 긍정적 행동을 포함한다(Enright & Fitzgibbons, 2011). 연구자들마다 강조하는 바에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McCullough 등(1997)은 용서의 부적 반응을 가해자와 관련된 자극에 대한 회피 행동과 파괴적인 보복 행동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Thompson과 Snyder(2003)는 긍정적인 태도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태도로의 변화도 용서에 포함하였다.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개인적 안녕과 부부 하위 체계의 안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습관적으로, 혹은 강요에 못 이겨서 잘못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용서는 오히려 잘못을 지속시키고 부부 하위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Fincham et al., 2006). 용서 연구자들은 이를 가짜 용서 혹은 거짓 용서라고 하면서 용서는 이들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짓 용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잘못의 인정, 반성, 사과, 보상을 위한 노력을 용서에 포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용서보다는 자기 용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nright와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1996)은 자기 용서를 정의하면서 잘못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 태도의 감소 및 정적 태도의 증가와 함께 자기 잘못에

대한 직면을 포함하였고, Hall과 Fincham(2005)은 자기 행위의 부적절성을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Woodyatt과 Wenzel(2013)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직면하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 잘못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거짓 용서와 구분하는 장치는 자기 용서뿐만 아니라 배우자 용서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배우자를 성급하게 용서하거나 반복적으로 용서할 때, 배우자가 잘못을 반복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유지되고 관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적 태도의 감소와 정적 태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잘못의 인정, 사과, 보상 노력 등 포함하여,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배우자 용서는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상처 치유를 돋고자 노력할 때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줄어들고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자기 용서는 자기(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우자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지원하면서, 자기(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줄이고 긍정적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부부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척도가 사용되었는데, 다음으로 부부 용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와 부부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기존의 용서 척도를 개관할 것이다. 이때 부부 용서에 관한 선행 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와 함께 대표적인 친밀한 관계인 미혼 커플 관계에서 배우자/파트너¹⁾ 용서와 자기 용서를 측정하는데 활

1) 본 연구는 부부 용서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로, 논문 전반에서는 부부 용서, 배우자 용서,

용된 척도도 포함할 것이다.

부부/커플 용서 척도

먼저 배우자/파트너 용서 측정에 사용된 척도를 살펴보고 그 다음 부부나 커플 관계에서 자기 용서 측정에 사용된 척도를 살펴볼 것이다. 배우자/파트너 용서 척도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용서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파트너의 특정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들 척도의 차이는 문항의 차이라기보다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지시문의 차이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용서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배우자/파트너에게서 상처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응답하도록 하고, 배우자/파트너의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건을 회상한 후에 그 사건과 관련한 반응을 응답하도록 한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파트너 용서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Pollard 등(1998)의 가족 용서 척도(Family Forgiveness Scale)를 사용하거나, McCullough 등(1988)의 가해행동동기척도(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 Scale: TRIM-12)나 Brown(2003)의 용서 경향성 척도(Tendency to Forgive Scale)를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편 배우자/파트너의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Paleari 등(2009)이 개발한 부부 공격행동 용서 척도(Marital

자기 용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를 개관할 때에는 부부 용서를 측정하는 척도뿐만 아니라 커플 관계에서의 용서를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하였고, 이 때에는 부부/커플이나 배우자/파트너라고 하였다.

Offence-Specific Forgiveness)가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Gordon과 Baucom(2003)의 용서 검사 개정판(Revised Forgiveness Inventory Scales), Enright의 Forgiveness Inventory(EFI)를 박종효(2006)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형 Enright 용서 척도(EFI-K)도 활용되었다. 여기서는 이를 각각의 척도를 간략하게 리뷰할 것이다.

우선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용서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는 다음과 같다. Pollard 등(1998)은 가족용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원가족 용서 하위 척도와 주요 관계 용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관계 용서 하위 척도는 파트너나 현재 중요한 또래 관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다. 주요 관계 용서 척도는 인식, 인정, 개선, 해결 및 선의의 5개 요인을 포함하며 총 20개의 문항은 10개의 부정 문항과 10개의 긍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커플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용서를 측정하는 문항(예: ‘언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을 포함한다.

연구자들은 McCullough 등(1988)의 가해행동 동기척도(TRIM)에서 문항을 발췌하고 지시문을 수정하여 파트너 용서 경향성을 측정하기도 하였는데, TRIM-12는 최근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Kachadourian 등(2004)의 연구와 Busby 등(2019)의 연구에서는 ‘내 파트너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라는 지시문을 포함하여 파트너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였고, 부적 반응 문항 1개와 정적 반응 문항 2개를 활용하였다. Fincham과 Beach(2002)의 연구2에서도 파트너가 자신에게 잘못했거나 상처를 주었던 상황들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여 파트너 용서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6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부적 반응 문항과 정적 반응 문항이 각각 3개였다.

Brown(2003)의 용서 경향성 척도도 부부 용서 경향성을 측정하는데 활용되었다. Brown (2003)의 용서 경향성 척도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Braithwaite 등 (2011)의 연구와 Robert 등(2020)의 연구에서는 부부 용서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파트너’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용서 경향성 척도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부적 반응과 2개의 정적 반응을 포함한다. Rye 등(2001)이 개발한 용서 척도 (Forgiveness Scale)도 부부 용서를 측정하는데 활용되었다(조영주, 2022). Rye 등의 용서 척도는 부정 반응 부재와 긍정 반응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조영주(2022)는 정성진(201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면서 배우자 용서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남편/아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배우자/파트너 용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척도는 다음과 같다. Fincham과 Beach(2002)는 연구1에서 파트너에게 모욕이나 위협을 당한 상황을 생각하도록 하고, 이 상황에 대한 정적 반응 질문과 부적 반응 질문을 각각 하나씩 제시하였다. 응답자는 어느 정도로 그렇게 반응할 것 같은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Fincham 등 (2007)은 상황 특수적 파트너 용서를 측정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파트너로 인해서 화가 났거나 상처받은 사건을 회상하고 가능한 한 구

체적으로 연구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9개의 문항을 읽고 상처받은 정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9개의 문항 중 6개는 부적 반응 문항이며 3개는 정적 반응 문항이다. 이후에 Palleari 등(2009)은 상황 특수적 파트너 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부 공격행동 용서 척도를 제작하였다. 우선 응답자에게 지난 6개월 동안 파트너의 잘못 중에서 가장 심각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도록 하고, 그 잘못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와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각각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 용서 척도의 문항을 제시하고 파트너의 잘못에 대해서 현재 경험하는 감정, 생각 및 행동 정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회피 하위척도와 자비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6문항과 4문항을 포함한다. 정문경(2017)은 이를 한국판으로 타당화 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도 분노-회피 하위척도와 자비 하위척도가 도출되었으며 각각 6개 문항과 2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Gordon과 Baucom(2003)은 용서 과정 모형 (Gordon & Baucom, 1998)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측정하는 용서 검사 개정판을 제작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현재 혹은 과거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주요한 배신 사건을 기술하도록 하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현재 어떤 경험을 하는지 총 23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Gordon 등(2009)의 연구에서는 단계1과 단계3의 문항만 사용하면서, 단계1에 포함된 8개 문항을 용서의 부적 반응으로 보고 단계3에 포함된 7개 문항을 용서의 정적 반응으로 보았다.

EFI를 박종효(2006)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형 Enright 용서 척도(EFI-K)도 파트너 용

서 연구(서정선, 신희천, 2007)에 활용되었다. EFI-K는 원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ㄱ)사건에 대한 정보, (ㄴ)부정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 그리고 (ㄷ)거짓 용서 확인 문항과 한 문항 용서 척도이다. 사건에 대한 정보에서는 상처받은 정도를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점(전혀 상처받지 않았다)과 2점(상처받지 않았다)으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정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는 감정, 생각 및 행동을 포함하며 각각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허위반응 문항 5문항(예, ‘나는 그 일로 인해 결코 상처받지 않았다’)을 합산한 30점 중 20점 이하로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서정선과 신희천(2007)은 이 척도에서 부정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 하위척도를 활용하여 파트너 용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부 용서는 배우자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잘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데, 부부 관계에서 자기 용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Pelucchi 등(2013)은 부부 관계에서 상황 특수적 자기 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Thompson 등(2005)의 기질적 용서 척도(Heartland Forgiveness Scale) 중 자기 용서 하위척도의 3개의 정적 반응 문항과 3개의 부적 반응 문항을 활용하였다. Pelucchi 등(2013)은 척도를 제시하기 전에 파트너에게 잘못해서 파트너가 상처를 받고 자신이 책임감을 느끼는 상황을 생각하도록 하였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로 책임감을 느끼는지 잘못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들은 상황 특수적 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부정적인 일

들로 인해 스스로를 계속 비판한다.’에서 ‘일들’은 ‘그 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부 관계에서 자기 용서를 연구하기 위하여 조영주(2022)는 Wohl, DeSgea와 Wahkinney(2008)가 개발하고 배소현(2010: 조영주, 2022에서 재인용)이 번안한 상태 자기 용서 척도(State Self-Forgiveness Scal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기 용서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쳐별적 상태와 자기 수용적 상태의 2개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원척도에서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상처 준 사건을 떠올리면서 응답하도록 한 것을 조영주는 ‘배우자에게 잘못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응답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부부/파트너 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용서를 측정하는 다양한 용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선행 용서 척도를 부부 용서에 활용하는 방식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선행 부부 용서 척도의 문제점과 척도 제작에서 고려할 점

부부 용서연구에서 부부 용서의 측정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부부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대부분의 척도는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의 용서 척도로, 부부 용서를 측정하기에 타당한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부부 관계에서 잘못을 한 자기를 용서하는 자기 용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와 함께 이를 위해 활용된 척도는 제한적이다. 또한 용서는 거짓 용서와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 용서의 측정에서 거짓 용서와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문항 구성에서 부적 반응

문항과 정적 반응 문항 수 간에 차이가 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적 용서 혹은 정적 용서에 치우친 용서를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부부 용서 척도 개발에서는 이를 제한점을 보완하고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배우자 용서와 함께 자기 용서를 측정하는 부부 용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부부 관계에서 자신에게 잘못한 배우자를 용서할 때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관계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Braithwaite et al., 2011; Paleari et al., 2009). 이에 더하여 자기 용서도 심리적 안녕감과 결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할 때 배우자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박종효, 김수경, 2017; Davis et al., 2015; Fincham et al., 2006). 용서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는 타인 용서에 더해서 자기 용서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Enright와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1996)은 용서에 타인 용서, 용서 구하기와 함께 자기 용서를 포함하였고, Thompson 등(2005)은 용서의 대상에 따라 용서를 타인 용서, 상황 용서 및 자기 용서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도 자기 용서를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김병직 등, 2013; Wohl et al., 2008; Woodyatt & Wenzel, 2013).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함께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용서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용서와 구분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잘못과 상처를 인정하는 진정한 용서는 잘못이나 상처를 아예 잊어버리는 망각, 주고받은 상처에 대한 부인, 잘못을 참아내는 묵과 등과는 다르다(Enright & Fitzgibbons, 2011). 상처를 받았다는 것 혹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처를 돌보는 노력을 할 때 진정한 용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거나 부인한다거나 참는 것과 같은 방식은 오히려 용서를 방해하기도 한다(Enright, 2004).

또한 거짓 용서가 포함될 때 용서와 용서의 선행 요인 및 결과 요인 간의 관련성이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다. 용서의 의도는 다양할 수 있는데, 부부 관계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거나 배우자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거나 혹은 배우자를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말로만 용서한다고 하거나 성급하게 용서할 수 있다(Enright, 2004). 이러한 거짓 용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심리적, 대인관계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용서를 질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자기 비난과 용서가 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전 은숙과 홍혜영(201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거절에 대해 민감하면서 자기 비난 수준이 높은 경우에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하려는 노력보다 먼저 성급하게 용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로 자존감이 회복되고 부부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부부의 관계만족과 삶의 만족이 증진하는 것으로 보지만(김병직 등, 2013; 조영주, 2022), 거짓용서를 포함할 때는 배우자 용서나 자기 용서는 오히려

심리적 안녕과 결혼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용서를 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의 유지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전은숙, 홍혜영, 2012; Fincham et al., 2006). 폭력을 행한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배우자를 용서한다면, 오히려 가정 폭력이 지속되며 종국에는 관계의 질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Fincham et al., 2006). 자기 용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배우자의 고통과 상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로 성급하게 자신을 용서한다면 가정 폭력이 지속되고 관계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용서는 진정한 부부 용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용서나 자기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부부하위체계의 특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용서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부부하위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거짓용서와 구분하기 위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며 상처에서 회복하도록 돋는 용서의 요소를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대인관계 용서에서는 거짓 용서를 구분하는 노력이 있었다. Enright와 Human Development Group(1996)은 용서에 용서 구하기를 구분하여 포함하였는데, 여기서 용서 구하기는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짓 자기 용서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김병직 등(2013)은 자기 용서 척도를 개발하면서 하위 요인 중의 하나로 자기 잘못을 회피

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인정’을 포함하고 거짓 용서와 구분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책임 인정은 부정정서와는 정적 상관이 있고,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Woodyatt과 Wenzel(2013)은 자기 용서를 거짓 용서, 처벌적 용서와 진정한 용서로 구분하였고, 거짓 자기 용서는 자존감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고 공감과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종효와 김수경(2017)은 거짓 용서는 행복, 우울, 상태 불안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고 상태 분노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용서에서 거짓 용서를 구분하는 연구는 자기 용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적극적인 표현과 노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용서 구하기로 이를 불리하고 이를 포함하는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용서의 부적 반응은 용서의 단계 초기에 강하게 나타나고 궁정 반응은 용서 단계의 후기에 증가하므로(Gordon & Baocom, 2003), 용서의 부적 반응과 정적 반응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용서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과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데(Rye et al., 2001; Gordon et al., 2009; Pelucchi et al., 2013), 용서의 부적 반응은 심리적 어려움과 관계 갈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용서의 정적 반응은 심리적 건강과 관계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조영주, 2022). 따라서 용서 척도에는 용서의 부적 반응과 정적 반응을 균형 있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배우

자 용서와 함께 자기 용서를 측정하고 용서 구하기를 포함하는 진정한 용서를 측정하며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를 균형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부 용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부부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정의에 따라 지시문과 용서 문항을 포함하는 예비척도를 제작할 것이다. 제작된 척도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요인 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출된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요인 구조가 적합한가?

연구문제 3.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방법

문항제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배우자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상처 치유를 돋고자 노력하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줄어들고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자기 용서는 자기(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우자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지원하면서, 자기(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줄이고 긍정적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부부 용서 관련 문헌, 선행 연구 및 활용된 척도를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정의에 맞도록 잘못한 일과 관련된 정보를 묻는 질문, 지시문, 부적 용서, 정적 용서 및 용서 구하기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작하였다.

우선 잘못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배우자 잘못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잘못한 일 중, 귀하가 가장 상처받은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자기 용서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귀하의 배우자’에게 잘못한 일 중, 귀하의 배우자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 잘못한 사건, 사건의 종류, 건 발생 시기, 지속 기간, 현재 지속 여부, 심각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²⁾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면서 상처받거나 상처 준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였고, 이후에 제시되는 문항 응답할 때 해당 사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에서 기술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귀하의 배우자’(배우자 용서의 경우)/‘귀하’(자기 용서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귀하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정도에 응답해 주십

2) 본 논문에서는 상처받은 사건의 내용, 종류, 발생 시기, 지속기간, 지속여부, 심각도와 관련된 설문 결과, 자료 분석 및 논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시오.’라는 지시문과 함께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각각 37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정의에 따라 부적 용서 15개 문항, 정적 용서 15개 문항, 그리고 용서 구하기 7개 문항을 제작하였는데,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는 감정, 사고, 행동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는 주체와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배우자 용서 문항에서의 ‘그/그녀’와 ‘나’를 자기 용서 문항에서는 각각 ‘나(혹은 내)’와 ‘그/그녀’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배우자 용서에는 ‘그/그녀가 벌받기 원한다’라고 제시하였고, 자기 용서에서는 ‘내가 벌받기 원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제작된 지시문과 문항을 포함하는 예비척도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문학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감수를 받아 보완하였다.

자료수집 절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후, 전문 설문 기관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 참여 대상, 연구 방법, 소요 시간, 연구 참여 보상, 연구 참여의 익명성 등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제시하였고, 이를 읽고 연구 참여 동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사건이나 배우자에게 잘못한 사건에 대한 회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응답 시 불편함을 느낀다면 중간에 설문을 그만두어도 좋다는 설명을 포함하였다. 설문 참가자는 설문이 끝난 후에 설문 기관을 통해서 소정의 보상금을 받았다.

연구대상

20대에서 60대의 기혼 남녀 총 617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300개의 표본이 바람직하다는 Tabachnick과 Fidell(2007)의 제안에 근거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각각의 연구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3명은 상처받은 경험과 상처를 준 경험이 모두 없다고 보고하였고, 3명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으나 배우자로부터 상처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3명은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나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2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588명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2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응답한 순서,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정렬하여 정렬된 순서대로 홀수 순번인 집단(집단 1)과 짝수 순번인 집단(집단 2)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1의 자료는 척도의 요인 구조를 탐색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활용하였고, 집단 2의 자료는 요인 구조를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하였다.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은 588명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 집단, 집단 1과 집단 2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자녀 수, 학력, 직업, 가구 소득, 거주지, 연애 및 결혼 기간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부부 용서 예비척도

본 연구에서 제작한 부부 용서 예비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 각각 3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는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전체		집단1		집단2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96	50.3	144	49.0	152	51.7
	여성	292	49.7	150	51.0	142	48.3
연령	20대	109	18.5	59	20.1	50	17.0
	30대	117	19.9	58	19.7	59	20.1
	40대	120	20.4	61	20.7	59	20.1
	50대	117	19.9	58	19.7	59	20.1
	60대	125	21.3	58	19.7	67	22.8
자녀 수	없음	126	21.4	67	22.8	59	20.1
	1명	177	30.1	94	32.0	83	28.2
	2명	253	43.0	117	39.8	136	46.3
	3명	30	5.1	15	5.1	15	5.1
	4명 이상	2	.3	1	.3	1	.3
학력	중졸 이하	4	.7	4	1.4	0	0
	고졸	94	16.0	46	15.6	48	16.3
	전문대졸	82	13.9	41	13.9	41	13.9
	4년대졸	333	56.6	165	56.1	168	57.1
	대학원 이상	75	12.8	38	12.9	37	12.6
직업	전문가	76	12.9	37	12.6	39	13.3
	기술공 및 중전문가	20	3.4	10	3.4	10	3.4
	사무 종사자	257	43.7	139	47.3	118	40.1
	서비스 종사자	39	6.6	19	6.5	20	6.8
	판매 종사자	23	3.9	11	3.7	12	4.1
	농업, 임업, 어업숙련 근로자	3	.5	2	.7	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2.4	9	3.1	5	1.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	1.7	3	1.0	7	2.4
	단순 노무 종사자	15	2.6	6	2.0	9	3.1
	군인	3	.5	2	.7	1	.3
	학생	4	.7	1	.3	3	1.0
	전업주부	103	17.5	46	15.6	57	19.4
	무직	21	3.6	9	3.1	12	4.1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계속)

특성	구분	전체		집단1		집단2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10	1.7	4	1.4	6	2.0
	1천만원-3천만원 미만	56	9.5	26	8.8	30	10.2
	3천만원-5천만원 미만	144	24.5	81	27.6	63	21.4
	5천만원-7천만원 미만	167	28.4	74	25.2	93	31.6
	7천만원-1억 미만	160	27.2	79	26.9	81	27.6
	1억 이상	51	8.7	30	10.2	21	7.1
거주지	서울	154	26.2	85	28.9	69	23.5
	인천·경기도	200	34.1	90	30.6	110	37.4
	강원도	16	2.7	8	2.7	8	2.7
	대전·세종·충청도	53	9.0	25	8.5	28	9.5
	부산·울산·대구·경상도	130	22.1	67	22.8	63	21.4
	광주·전라도	33	5.6	19	6.5	14	4.8
	제주도	2	.3	0	0	2	.7
전체		588	100.0	294	100.0	294	100.0
		M	SD	M	SD	M	SD
관계기간	연애기간(개월)	34.82	31.56	36.71	33.04	32.93	29.93
	결혼기간(개월)	198.91	160.92	186.11	155.81	211.73	165.15
	연애 및 결혼 기간(개월)	233.74	156.79	222.82	150.75	244.66	162.12

각 문항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

배우자 용서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Paleari 등(2009)이 제작한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Marital Offence-Specific Forgiveness)를 정문경(2017)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회피 하위척도와 자비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회피 하위척도는 6개 문항을 포함하고 자비 하위척도는 2개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

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분노-회피 하위척도의 문항 점수를 역산한 후 전체 문항 점수를 평균하여 배우자 용서 점수로 사용한다. 정문경(201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분노-회피 요인이 .79~.83, 자비 요인이 .75~.80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분노-회피 요인이 .89, 자비 요인이 .83, 전체가 .88이었다.

상태 자기 용서 척도

자기 용서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Wohl 등(2008)이 개발한 상태 자기 용서 척도(State Self-Forgiveness Scales)를 배소현(2010)이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한국판 상태 자기 용서 척도는 자기 처벌적 상태와 자기 수용적 상태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전체 16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처벌적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은 9개이고 자기 수용적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이 7개이다. 각 문항은 5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점수는 자기 처벌적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을 역산하여 전체 문항의 평균을 사용한다. 원래 척도에서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건을 떠올리면서 응답하라고 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게 잘못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응답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배소현(2010)의 연구에서 자기 처벌적 상태와 자기 수용적 상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6과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 처벌적 상태, 자기 수용적 상태 및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93, .89, .91이었다.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hompson 등(2005)이 개발한 The Heartland Forgiveness Scale을 홍현기 등(2016)이 타당화한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 사건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타인 용서, 자기 용서, 상황 용서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은 3개의 부정 문항과 3개의 긍정 문항으로 측정한다. 부정 문항 점수를 역산한 후 전체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전체 기질적

용서 점수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 경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홍현기 등(2016)의 연구에서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부부 관계 질 지표

전반적인 결혼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Norton(1983)이 개발한 부부 관계 질 지표(Quality of Marriage Index)를 장춘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6번 문항은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아도 나의 결혼생활은’으로 10점 척도(1-절대적으로 불행하다; 10-완벽하게 행복하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 부부 관계 질 지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남편과 아내 각각 .96,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8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명소 등(2001)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6개의 요인을 포함하며, 전체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하위변인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66~.76였고,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 전체의 내적 일치

도는 .90이었다.

자료분석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집단 1을 대상으로 SPSS 21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문항 간의 상관이 .80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유사한 문항이 겹치지 않도록 제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표본 적절성 측정치(KMO)와 Bar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법과 회전법은 각각 최대 우도법과 사각회전방법(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적용하였다. 공통분이 .40 이하인 경우, 요인 부하량이 .40 이하인 경우, 여러 요인에 .40 이상으로 교차부하되면서 그 차이가 .20 이하인 문항을 제외하였다. 이 때 배우자 용서 척도 혹은 자기 용서 척도에서 낮은 공통분이나 높은 교차부하량을 보이는 경우, 두 개의 척도 모두에서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 이후에 다시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방법(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와 관련해서는 집단 2를 대상으로 AMOS 18.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3과 관련하여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와 Spearman-Brown 반분계수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4의 타당도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 용서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질적 용서를 측정하는 척도와 상관분석을 하였다. 공인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부부 용서와 심리적 안녕 및 관계만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즉 부부 용서가 각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과 함께 부부 관계만족을 포함하였다.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충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준의 척도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결혼 만족과 심리적 안녕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집단 1을 대상으로 배우자 용서를 측정하는 37개 문항 간의 상관분석 및 부부 관계에서 자기 용서를 측정하는 37개 문항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간에 높은 상관 (.80 이상)이 있는 경우에 상관이 높은 문항 중 하나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매치되는 문항을 포함하는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고, 높은 상관으로 제외하는 문항은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 둘 다에서 제외하였다. 이 기준으로 총 5개의 문항이 제외되었고, 3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우자 용서 척도의 32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초기 고유값 1이상인 요인은 5개였고, 스크리 분석 결과는 3개의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수를 3개로 설정한 요인분석에서 공통분이 .40 이하인 문항은 5개였다. 한편 자기 용서를 측정하는 32개 문

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초기 고유값 1 이상인 요인은 6개였고, 스크리 분석 결과는 3 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수를 3개로 설정하고 요인분석했을 때 공통분 이 .40 이하인 문항은 9개였다. 낮은 공통분 값을 가진 문항을 두 척도에서 모두 제외하였

표 2.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배우자 용서				자기 용서			
	1	2	3	공통분	1	2	3	공통분
2 **가 별 받기 바란다.	.74	.04	-.05	.60	.71	.03	.09	.45
3 **를 신뢰할 수 없다.	.78	.03	-.12	.76	.80	.00	.00	.65
4 **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5	.01	-.06	.64	.75	.01	-.04	.60
5 **가 불행하길 바란다.	.70	-.04	-.04	.55	.71	-.10	-.06	.54
6 **가 싫다.	.80	.01	-.13	.81	.80	-.02	-.07	.69
7 **에게 화가 난다.	.70	.05	-.06	.55	.80	.08	-.02	.68
8 **가 무섭다.	.70	-.16	.13	.45	.84	-.07	.06	.64
9 **가 실망스럽다.	.71	.05	-.07	.57	.80	.12	-.01	.69
10 **가 원망스럽다.	.81	.02	.02	.63	.87	.04	.00	.77
11 **를 비난하는 말을 한다.	.86	.03	.02	.69	.81	-.01	.00	.65
12 **를 존중하지 않는다.	.87	-.01	.00	.75	.76	-.09	-.11	.66
17 **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	-.06	-.04	.67	.51	-.09	-.04	.66	.50
18 **는 신뢰할만한 사람이다.	-.12	-.05	.74	.69	-.12	-.15	.68	.58
19 **는 사랑받을만한 사람이다.	-.08	.05	.80	.76	-.01	-.04	.83	.70
23 **를 사랑한다.	-.21	.12	.65	.74	-.01	.07	.81	.67
25 **에게 희망을 가진다.	-.03	.05	.84	.77	.05	.10	.87	.73
26 **를 격려한다.	.06	.02	.88	.70	.04	.01	.87	.72
27 **를 돌본다.	.05	.01	.77	.55	.03	.00	.86	.71
34 **는 OO에게 미안함을 표현했다.	.06	.63	.08	.40	.02	.88	-.02	.77
35 **는 OO에게 사과했다.	-.11	.90	-.09	.83	.01	.97	.01	.94
36 **는 OO에게 용서를 구했다.	-.08	.92	-.07	.86	-.04	.93	-.03	.85
37 **는 **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07	.76	.10	.58	.01	.70	.03	.49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10.74	3.32	1.16		8.36	4.69	2.14	
추출 제곱합 적재값 (% 분산)	46.68	14.43	5.03		36.34	20.38	9.30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10.06	4.20	8.93		8.61	3.91	6.75	

주. N=294. 배우자 용서에서 **는 '그/그녀'이고 OO은 '나'이며, 자기 용서에서 **는 '나(혹은 내)'이고 OO은 '그/그녀'임.

고, 다시 총 22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우자 용서를 측정하는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였고(KMO=.94; Bartlett 구형성 검정: $X^2(231)=5507.167, p<.001$), 자기 용서를 측정하는 자료도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KMO=.92; Barlett 구형성 검정: $X^2(231)=5582.08, p<.001$).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에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두 척도 모두 1요인에는 ‘부적 용서’의 11개 문항이 부하되었고, 2요인에는 ‘용서 구하기’의 4개 문항이 부하되었으며, 3요인에는 ‘정적 용서’의 7개 문항이 부하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통분은

.40 이상이었고 요인부하량은 .40 이상이었으며 두 개 이상의 요인에 교차부하된 문항은 없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는데, 요인은 부적 용서(1요인), 정적 용서(3요인), 용서 구하기(2요인) 순으로 제시하고 문항은 문항 번호 순으로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집단 2를 대상으로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 각각에 대하여 3개의 하위 요인과 22개의 문항을 포함하는 3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3요인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배우자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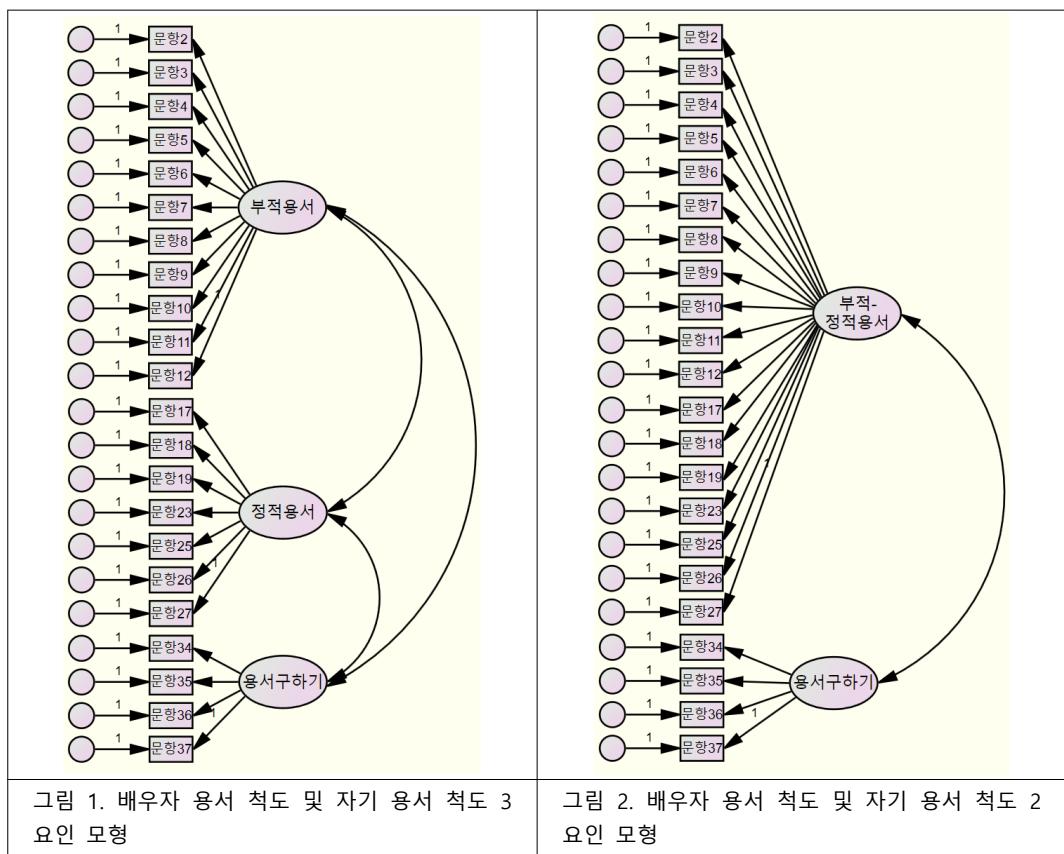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결과

하위척도	모형	χ^2	df	χ^2/df	CFI	TLI	SRMR	RMSEA
배우자 용서	1요인 모형	2309.184	209	11.049	.665	.630	.123	.186
	2요인 모형	1379.152	208	6.631	.813	.793	.072	.139
	3요인 모형 (연구모형)	767.702	206	3.727	.911	.900	.047	.096
자기 용서	1요인 모형	2749.398	209	13.155	.517	.477	.176	.204
	2요인 모형	1664.140	208	8.001	.729	.699	.131	.155
	3요인 모형 (연구모형)	694.705	206	3.372	.909	.898	.062	.090

주. N=294.

서의 3요인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chi^2/df=3.727$, CFI=.911, TLI=.900, SRMR=.047, RMSEA=.096), 자기 용서의 3요인 모형 적합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3.372$, CFI=.909, TLI=.898, SRMR=.062, RMSEA=.090). 이에 더하여 22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1요인 모형(그림으로는 제시하지 않음)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1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좋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그림 2와 같이 부적 용서 문항과 정적 용서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은 2요인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는데,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대한 2요인 모형의 모형 적합도 역시 모두 좋지 않았다. 1요인 모형이나 2요인 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좋지 않았고 3요인 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은 부적 용서, 정적 용서, 용서 구하기가 구분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기술통계 및 상관

전체 588명을 대상으로 한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의 기술통계치와 이들 간의 상관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은 .11에서 .65였고 첨도는 .00에서 .64였는데, 이는 수집된 자료가 정상분포를 보임을 의미한다(West et al., 1995). 배우자 부적 용서와 배우자 정적 용서 간의 상관은 -.75이었고, 배우자 용서 구하기는 부적 배우자 용서 및 정적 배우자 용서와 각각 -.29와 .29의 상관이 있었다. 한편 부적 자기 용서와 정적 자기 용서 간의 상관은 -.53였고, 자기 용서 구하기는 부적 자기 용서 및 정적 자기 용서와 각각 .16과 .05의 상관이 있었다. 즉, 배우자 용서의 하위 요인 간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적 용서, 정적 용서 및 용서 구하기가 각각 .28, .30과 .32로 중간 크기의 관련성이 있었다.

신뢰도 분석

부부 용서 척도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각 요인 및 전체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와 Spearman-Brown 반분계수를 살펴보았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적 일치도는 .91

표 4.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1. 부적 배우자 용서	-							
2. 정적 배우자 용서		-.75***	-					
3. 배우자 용서 구하기		-.29***	.29***	-				
4. 배우자 용서 전체		-.94***	.88***	.52***	-			
5. 부적 자기 용서		.28***	-.14**	-.05	-.24***	-		
6. 정적 자기 용서		-.21***	.30***	.07	.25***	-.52***	-	
7. 자기 용서 구하기		-.27***	.31***	.32***	.35***	.16***	.05	-
8. 자기 용서 전체		-.36***	.31***	.10***	.37***	-.88***	.78***	.19***
<i>M</i>	2.27	3.57	3.29	3.60	2.23	3.75	3.57	3.73
<i>SD</i>	.94	.88	1.03	.78	.85	.72	.92	.59
왜도	.40	-.33	-.37	-.33	.45	-.37	-.65	-.11
첨도	-.50	-.21	-.64	-.25	-.29	.40	.00	-.31

주. N=588. *** $p<.001$.

표 5.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신뢰도

	배우자 용서				자기 용서			
	부적 용서	정적 용서	용서 구하기	전체	부적 용서	정적 용서	용서 구하기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95	.94	.93	.95	.95	.93	.93	.91
Spearman-Brown 반분계수	.91	.90	.91	.98	.92	.89	.92	.97

주. N=588.

에서 .98로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하였으며, Spearman-Brown 반분계수도 .89에서 .97로 우수하였다.

타당도 검정

배우자 용서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자기 용서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 용서 연구에서 활용된 상태 자기 용서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배우자 용서의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는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와 -.71과 .60의 높은 상관을 보였고, 용서 구하기는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와 .23의 상관이 있었다. 자

표 6.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및 준거관련 타당도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공인 타당도	
	부부 관계 공격 행동 용서 척도	상태 자기 용서 척도	기질적 용서 척도	결혼 만족	심리적 안녕	
부적 배우자 용서	-.71***	-.18***	-.28***	-.61***	-.36***	
정적 배우자 용서	.60***	.15***	.25***	.59***	.34***	
배우자 용서 구하기	.23***	.11**	.14**	.43***	.25***	
배우자 용서 전체	.72***	.19***	.29***	.68***	.40***	
부적 자기 용서	-.24***	-.70***	-.19***	-.13**	-.31***	
정적 자기 용서	.14**	.66***	.24***	.18***	.42***	
자기 용서 구하기	.28***	-.02	.10*	.32***	.19***	
자기 용서 전체	.31***	.76***	.26***	.26***	.44***	
<i>M</i>	3.24	3.65	4.27	5.31	3.40	
<i>SD</i>	.83	.61	.81	1.58	.34	

주. N=588. *** $p < .001$.

기 용서의 부적정서와 정적 용서는 상태 자기 용서 척도와 -.70과 .66의 높은 상관이 있었고, 용서 구하기는 상태 자기 용서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2$, $p > .05$).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질적 용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표 6에 포함하였다.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는 기질적 용서와 .30 이하의 상관이 있었고, 부부 사이에서의 용서가 기질적 용서와는 구분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 만족 및 심리적 안녕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는 결혼 만족 및 심리적 안녕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 때 배우자 용서와 결혼 만족 간의 관련성($r=.43 \sim .68$)은 자기 용서와 결혼 만족 간의 관련성($r=.13 \sim .32$)에 비

해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용서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련성($r=.25 \sim .40$)은 자기 용서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련성($r=.19 \sim .44$)과 유사한 크기였다.

다음으로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증분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의 2개 하위 요인은 결혼 만족도를 42% 설명하였고 ($F(2,585)=207.39$, $p < .001$),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배우자 용서 척도의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는 결혼 만족을 추가적으로 9% 설명하였으며 ($F(2,583)=49.97$, $p < .001$), 배우자의 용서 구하기는 결혼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3% 설명하였다($F(2,582)=37.72$, $p < .001$).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는 심리적 안녕을 14% 설명하였고($F(2,585)=46.96$, $p < .001$), 본 연구의 배우자 용서 척도의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는 심리적

표 7.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증분 타당도

단계	척도 및 하위척도	결혼 만족			심리적 안녕		
		R^2	ΔR^2	ΔF	ΔR^2	ΔR^2	ΔF
배우자 용서	1 부부 관계공격행동용서 척도_분노회피	.42	.42	207.39***	.14	.14	46.96***
	부부 관계공격행동용서 척도_자비						
	2 배우자 용서 척도_부적 용서	.51	.09	49.97***	.03	.03	10.75**
	배우자 용서 척도_정적 용서						
	3 배우자 용서 척도_용서 구하기	.54	.03	37.72***	.01	.01	6.95
	1 상태 자기 용서 척도_자기처벌적	.03	.03	8.16***	.23	.23	86.93***
자기 용서	상태 자기 용서 척도_자기수용적						
	2 자기 용서 척도_부적 용서	.04	.01	2.81	.03	.03	9.93***
	자기 용서 척도_정적 용서						
	3 자기 용서 척도_용서 구하기	.14	.10	69.76***	.03	.03	26.72***

주. N=588. * $p<.05$, ** $p<.01$, *** $p<.001$.

안녕을 추가적으로 3% 설명하였으며($F(2,583)=10.75$, $p<.01$), 심리적 안녕에 대한 배우자의 용서 구하기의 추가적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자기 용서의 증분 타당도를 살펴보면 부부 관계에서 자기 용서를 측정하는데 활용된 상태 자기 용서 척도의 2개 하위 요인은 결혼 만족도를 3% 설명하였고($F(2,585)=8.13$, $p<.001$),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 용서 척도의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추가적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았으며($F(2,583)=2.81$, $p>.05$), 자신의 용서 구하기는 결혼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10% 설명하였다($F(2,582)=69.76$, $p<.001$). 상태 자기 용서 척도는 심리적 안녕을 23% 설명하였고($F(2,585)=86.93$, $p<.001$), 본 연구의 자기 용서 척도의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는 심리적 안녕을 추가적으로 3% 설명하였으며($F(2,583)=9.93$, $p<.001$), 자신의 용서 구하기는 심리적 안녕

을 추가적으로 3% 설명하였다($F(2,582)=26.72$, $p<.00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포함하는 부부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하위 체계의 용서 경향성이 아닌 특정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를 살펴보았는데, 부부관계에서 상처를 주거나 받을 때 각기 다른 상황과 시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서를 통하여 부부 관계의 적응, 정서적 안정성, 만족도 등이 높아지고 부부 하위체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곽민하, 전혜성, 2016; 정문경, 2017), 본 연구에서는 부부 용서를 정의하면서 용서

의 결과보다는 상처 주거나 상처받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용서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때 자기에게 잘못을 한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과 함께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부부 용서의 주요한 측면으로 보았다.

배우자 용서는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상처 치유를 돋고자 노력하는 것을 인지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줄어들고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자기 용서는 자기(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우자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지원하며 자기(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줄이고 긍정적 태도를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각각 부적 용서, 정적 용서 및 용서 구하기이다. ‘부적 용서’는 배우자 혹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생각 및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정적 용서’는 배우자 혹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생각 및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용서 구하기’는 배우자가 혹은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상처 치유를 돋고자 노력하고 이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용서 구하기 하위척도를 포함하여 거짓 용서와 구분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용서가 반드시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부부관계에서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미안함을 전달하고 나아가서 상대방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는 노력이 없다면 진정한 배우자 용서 혹은 자기 용서라고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부부 용서의 문항은 문헌 연구를 토대로 개발하였는데, 각 문항은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각 문항의 주어 혹은 목적어를 바꾸어 한 세트는 배우자 용서를 측정하고 다른 한 세트는 자기 용서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이 정신 건강과 부부 관계의 질, 즉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부부 하위체계의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와 관련된 결과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상관분석 및 타당도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다.

서론에서 선행 용서 척도의 제한점과 부부 용서 척도 제작 시 고려할 점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부정적인 태도의 감소를 측정하기 위한 ‘부적 용서’ 문항과 긍정적인 태도의 증가를 측정하기 위한 ‘정적 용서’ 문항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거짓 용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용서 구하기’에 해당하는 문항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부적 용서, 정적 용서 및 용서 구하기를 포함하는 3개의 요인은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각각 ‘부적 용서’ 요인에는 11개 문항이 포함되었고(예: ‘그/그녀가 별 받기 바란다’/‘내가 별 받기 바란다’), ‘정적 용서’ 요인에는 7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예: ‘그/그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 ‘용서 구하기’ 요인에는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예: ‘나는 그/그녀에게 미안함을 표현했다.’/‘그/그녀는 나에게 미안함을 표현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부 용서 척도의 3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하였고,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좋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 각각의 문항을 3개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용서에서 잘못한 배우자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 태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 태도의 감소와 긍정적 태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부적 용서, 정적 용서 및 용서 구하기의 3개 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우선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선행 부부 용서 연구에서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조영주, 2022; Rye et al., 2004). 부적 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간에는 상호억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용서 구하기와 부적 용서 및 정적 용서 간의 관련성을 보면, 우선 배우자의 용서 구하기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부적 관련성이 있고 긍정적 태도와는 정적 관련성이 있었다. 한편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는 정적 관련성이 있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병직 등(2013)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의 인정은 자기 수용과 정적 관련이 있는 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 사고, 행동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용서 구하기’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상기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부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관련성을 보면 배우자 용서가 높을수록 자기 용서도 높았다. 이는 각기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측정하여 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조영주(2022)의 연구 결과와 일관적이다. 잘못한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줄어드는 것과 잘못을 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줄어드는 것 간에 정적 관련이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회복하는 것 간에도 정적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과 자신이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간에도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각된 배우자의 용서 구하기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염밀히 말하면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지각’할수록 배우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을 위해 실제 노력한 것과 상처 받은 사람이 지각한 것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부부 용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내적 일치도와 Spearman-Brown 반분계수로 살펴본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하였다. 즉 배우자 용서 척도 및 자기 용서 척도의 각 하위 요인에 포함된 문항 간의 유사성과 전체 문항 간의 유사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측정하지 않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점에 부부 용서 척도를 검사하여 신뢰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부부 용서 척도는 타당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배우자 용서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Paleari 등 (2009)이 제작하고 정문경(2017)이 타당화한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잘못을 한 배우자에 대한 분노, 회피 및 자비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배우자 용서 척도 전체는 부부 관계 공격행동척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었다. 하위 요인별로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는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와 각각 부적 상관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배우자 용서 척도가 배우자 용서를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임을 의미한다. 용서 구하기는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부부 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에는 용서 구하기와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기 용서 척도의 수렴 타당도는 상태 자기 용서 척도(배소현, 2010; Wohl et al., 2008)를 활용하여 측정한 부부 관계에서의 자기 용서와의 관련성으로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 용서 척도가 타당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자기 용서 척도의 부적 용서와 정적 용서는 상태 자기 용서 척도와 각각 밀접한 부적 및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 용서 척도의 용서 구하기 하위척도는 상태 자기 용서 척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 용서 척도와 마찬가지로 상태 자기 용서 척도가 용서 구하기는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라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특정 잘못에 대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별별 타당도는 일반적인 용서 성향을 측정하는 기질적 용서 척도와의 관련성으로 살펴보았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기질적 용서와 유사한 크기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그 크기는 모두 .30 미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관계에서의 특정한 잘못에 대한 용서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용서 경향성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하지만 이들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엄밀하게는 부부 관계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부부 관계에서 대체적인 배우자 용서 경향성과 자기 용서 경향성, 일반적 관계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타인용서와 자기 용서, 일반적인 타인용서 경향성과 자기 용서 경향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부 용서는 부부 관계의 질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강주희, 박종효, 2014; Reed & Enright, 2006),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결혼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결혼 만족과 상관이 있었는데, 배우자 용서와 결혼 만족 간의 관련성이 자기 용서와 결혼 만족 간의 관련성보다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용서에 비해서 배우자 용서가 부부 하위체계의 안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용서가 자기 용서에 비해서 대인관계적 요소가 더 많다고 한 Fincham 등(2006)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충분 타당도 분석 결과, 부부 용서 척도에 부적 용서, 정적 용서 및 용서 구하기 3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함으로써 기존 부부 용서 척도가 결혼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을

설명하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 또한 본 연구의 부부 용서 척도와 부적 용서, 정적 용서 및 용서 구하기를 측정하는 문항과 하위 요인이 타당함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부 용서 척도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부부 용서 척도에 배우자 용서에 더하여 자기 용서를 포함하여 부부 용서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관련성, 선행요인이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미치는 영향의 유사성과 차별성 및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가 결과 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용서 구하기 하위척도를 포함하여 배우자 용서도 거짓 용서와 구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용서 연구에서 자기 용서는 거짓 용서와 구분하여 연구하기도 했으나 타인용서는 거짓 용서와 구분하는 장치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배우자 용서에서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용서 구하기 노력을 포함하여 거짓 용서와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용서 연구를 확장하였다.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상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용서를 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우월감의 과시, 배우자에 대한 통제, 자기비난 등과 같은 의도와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전은숙, 홍혜영, 2012; Enright, 2004). 이는 나아가서 부부하위체계를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용서 구하기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부부 용서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고 개인의 삶의 질과 부부 관계의 질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부 용서 척도는 상담 실제에서도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척도는 부부가 상처를 주고 받은 사건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 용서를 했는지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상처를 주고 받은 경우에도 이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내담자가 척도에 응답하면서 배우자와 자신에 대한 태도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 또한 부부의 갈등과 용서 정도를 이해하는데 이 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담자가 배우자나 자신을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할 때, 상담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개입하는데 부부 용서 척도의 문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자는 배우자와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입은 부부를 상담할 때, 본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함으로써 부정적 태도나 궁정적 태도의 변화를 포함하여 상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한 바와 같이 학문적 의의와 상담 실제에 대한 함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관련성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특질용서가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 후속 종단연구를 통해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부 용서 척도는 부부 하위체계 변화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본 척도를 활용하여 부부 용서가 부부 하위체계와 가족 체계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또

어떤 기제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둘째, 부부 용서 척도는 또 다른 친밀한 관계인 연인관계에서의 용서를 측정하는 ‘커플 용서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대개 연인은 부부에 비해서 관계 기간이 짧고 관여도가 낮으며 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조영주, 심은정, 2023), 부부 용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셋째, 부부가 서로에게 잘못한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의 종류, 지속기간, 심각도 등을 조사하기는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타당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잘못의 특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부부 용서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자료는 기혼 남녀에게서 수집하였는데 부부의 쌍자료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쌍자료를 수집하여 자기보고 설문 자료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구분하여 부부 하위체계 내의 상호작용을 보다 명확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희, 박종효 (201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용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상담학연구*, 15(6), 2245-2267.
- 곽민하, 전혜성 (2016). 부부갈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탈중심화 및 용서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4(3), 339-359.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병직, 이동귀, 김지근, 김윤상, 황정은 (2013). 자기 용서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4(2), 973-993.
- 김혜숙 (2008).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학지사*.
-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 박종효, 김수경 (2017). 진정한 자기 용서에 대한 탐색: 거짓 자기 용서와 처벌적 자기 용서와의 차별성. *교육심리연구*, 31(4), 589-613.
- 배소현 (2010). 한국판 자기 용서상태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 이윤희, 서수근 (2012). 한국판 가족용서 척도 개발 및 가족용서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사이에서 또래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69-95.
-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은숙, 홍혜영 (2012). 성인애착과 용서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159-1179.
- 정문경 (2017). 한국판 부부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MOFS-K)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8(2), 333-350.
- 정성진 (2011). 한국판 가해행동 대인동기 척도(TRIM-12-K)의 타당화 연구. *학문과 기*

- 독교 세계관, 2, 209-225.
- 조영주 (2022).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이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3), 765-792.
- 조영주, 심은정 (2023).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2), 587-608.
- 홍현기, 이정은, 김진경, 강규현, 이수미, 현명호 (2016).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 (K-HF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2), 607-621.
- Braithwaite, S. R., Selby, E. A., & Fincham, F. D. (2011). Forgive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4), 551-559.
- Brown, R. P. (200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endency to forgive: Construct validity and links with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6), 759-771.
- Busby, D. M., Day, R. D., & Olsen, J. (2019). Understanding couple shared reality: The case of combined couple versus discrepancy assessments in understanding couple forgivenes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1), 42-51.
- Davis, D. E., Ho, M. Y., Griffin, B. J., Bell, C., Hook, J. N., Van Tongeren, D. R., DeBlaere, C., Worthington, E. W., & Westbrook, C. J. (2015). Forgiving the self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329-335.
- Enright R. D. (2004). *용서는 선택이다* (채규만 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01년).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11). *용서 심리학: 내담자의 분노 해결하기* (방기연 역). 시그마프레스 (원본 출판 2000년).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2), 107-126.
- Fincham, F. D., & Beach, S. R. H. (2002). Forgiveness in marriage: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constructive communication. *Personal Relationships*, 9(3), 239-251.
- Fincham, F. D., Beach, S. R. H., & Davila, J. (2007).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forg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542-545.
- Fincham, F. D., Hall, J., & Beach, S. R. H. (2006). Forgiveness in marriag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amily Relations*, 55(4), 415-427.
- Gordon, K. C., & Baucom, D. H. (2003). Forgiveness and marriage: Preliminary support for a measure based on a model of recovery from a marital betrayal.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3), 179-199.
- Gordon, K. C., & Baucom, D. H. (1998). Understanding betrayals in marriage: A synthesized model of forgiveness. *Family Process*, 37(4), 425-450.
- Gordon, K. C., Hughes, F. M., Tomcik, N. D., Dixon, L. J., & Litzinger, S. C. (2009). Widening spheres of impact: The role of

- forgiveness in marital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1), 1-13.
- Hall, J. H., & Fincham, F. D. (2005). Self forgiveness: The stepchild of forgiveness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5), 621-637.
- Johnson, S. M. (2004).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marital therapy: Creating connections*. New York: Brunner/ Mazel.
- Kachadourian, L. K., Fincham, F., & Davila, J. (2004). The tendency to forgive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The role of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11(3), 373-393.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6), 1586-1603.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Minuchin, S., & Nichols, M. P. (2013). *가족치료: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오제은 역). 학지사. (원본 출판 1993년).
-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09). Measuring offence-specific forgiveness in marriage: The marital offence-specific forgiveness scale (MOFS). *Psychological Assessment*, 21(2), 194-209.
- Pelucchi, S.,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13). Self-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It matters to both of u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541-549.
- Pollard, M. W., Anderson, R. A., William, T. A., & Jennings, G. (1998). The development of a family forgiveness scale.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 95-109.
- Reed, G. L., & Enright, R. D. (2006). The effects of forgiveness therapy on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for women after spousal emotion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920-929.
- Robert K., Jaurequi, M. E., Kimmes, J. G., & Selice, L. (2020). Trait mindful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role of forgiveness among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7(1), 96-207.
- Rye, M. S., Flock, C. D., Heim, T. A., Olszewski, B. T., & Traina, E. (2004). Forgiveness of an ex-spouse: How does it relate to mental health following a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3/4), 31-51.
- Rye, M. S., Loiacono, D. M., Folck, C. D., Olszewski, B. T., Heim, T. A., & Madia, B. P. (2001).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wo forgiveness scales.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al-Learning Personality Social*, 20, 260-277.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Boston, MA: Pearson/Allyn & Bacon.
-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 Measuring forgiveness.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 301-3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N., & Billings, L. S., ... Roberts, D. E. (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2), 313-36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hol, M. J. A., DeShea, L., & Wahkinney, R. L. (2008). Looking within: Measuring state self-forg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40(1), 1-10.
- Woldarsky Meneses, C., & Greenberg, L. S. (2014).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emotion-focused couple therapy: Relating process to outcom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0(1), 49-67.
- Woodyatt, L., & Wenzel, M. (2013). Self-forgiveness and restoration of an offender following a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2), 225-259.
- Zuccarini, D., Johnson, S. M., Dalgleish, T. L., & Makinen, J. A. (2013).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emotionally focused therapy for couples: The client change process and therapist interven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9(2), 148-162.

원고 접수일 : 2023. 09. 25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1. 19

게재 결정일 : 2024. 04. 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arital Forgiveness Scale

Young-ju Ch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a reliable Marital Forgiveness Scale (Marital-FS). The scale encompasses both spouse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within marital contexts. To establish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arital-FS, data were collected from 588 married individual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that both the Spouse-Forgiveness Scale (Spouse-FS) and the Self-Forgiveness Scale (Self-FS) comprised 22 items each, with three sub-factors: negative forgiveness, positive forgiveness, and seeking forgiveness. The Spouse-FS and Self-FS demonstrated high reliability through split-half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measures. Additionally, the scales exhibited strong convergent, discriminant, concurrent, and incremental validity. The finding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The Marital-FS, which includes both the Spouse-FS and Self-FS, effectively distinguishes marital forgiveness from false forgiveness. In marital counseling, the Marital-FS can be utilized to assess the couple's wounds, forgiveness levels, and the outcomes of counseling interventions.

Key words : Marital Forgiveness Scale, Spouse-Forgiveness, Self-Forgiveness, Seeking Forgiveness, Validation